

LG화학, 2차전지 전해액 구매 확대

김반석 부회장 2차전지 협력기업 리켄 방문 ... 구매량 3-10배 늘릴 것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이 2차전지 협력기업인 리켄을 방문해 전해액 구매를 늘리는 동시에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반석 부회장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리켄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리켄은 LG화학의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LG화학에 80억원 상당의 전해액을 공급했다.

LG화학은 리켄과 전해액 첨가제, 전극활물질 점착 고정제를 공동 개발한 바 있으며, 2011년 말까지 리켄의 전해액을 3-10배 더 구매하기로 했다.

김반석 부회장은 “혼자 아닌 함께 잘할 때 경쟁력은 배가하는 것으로 특히 리튬이온 2차전지 사업은 다양한 소재와 기술 융합이 경쟁력의 핵심인만큼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14>